





추석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는 날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날

추석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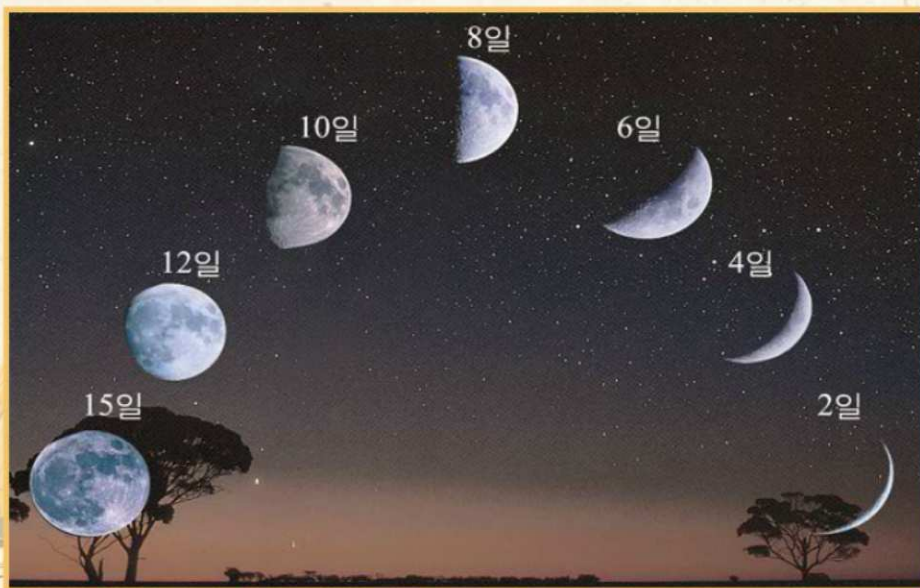
추석은
언제일까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석은 어떤 날인지 알아보시다.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지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달맞이를 하고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즐기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명절입니다. 이날에는 부모님과 친척들을 찾아뵙고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 달 모양의 변화를 알아보을까요?



추석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말인지 알아보시다.

- 한가위

한가위에서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말입니다. 즉,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 중추절

‘중추절’은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인 한가위를 이르는 말이며, ‘중추’는 가을 석 달 중에 중간 달을 의미한다.

추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날일까요?

추석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로 여겨왔습니다.

오랜 옛날 사람들은 세상을 환하게 밝혀 주는 태양을 신성시했고, 한 달에 한 번 둥글게 하늘을 채우는 보름달도 고마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 년 중 보름달이 가장 큰 8월 15일 밤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에는 줄다리기, 씨름, 강강술래 등의 놀이를 하였습니다.



추석날 하는 일을 알아보시다.

• 차례 지내기



추석날 처음 하는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를 지내는 일입니다. 햅쌀로 밥을 짓고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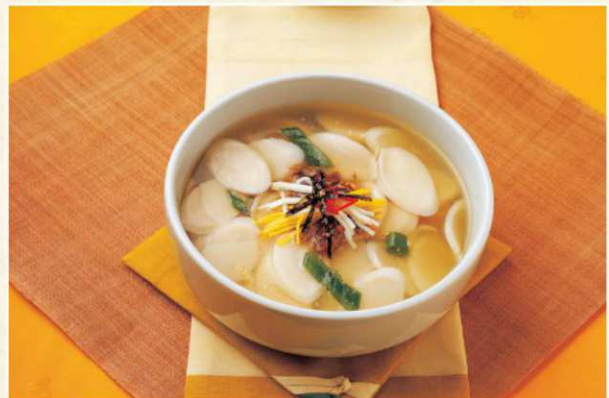
차례가 끝나면 차례에 올렸던 음식으로 온 가족이 음복을 합니다.

• 성묘와 벌초



추석이 되기 전 미리 조상의 산소에 가서 벌초합니다. 그리고 추석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성묘를 하는데, 이것을 효성의 표시와 도리로 여겼습니다.

추석과 설날에 먹는 음식의 차이점을 알아보을까요?



추석 전통 차례상에 대해 알아보시다.

- 차례상 상차림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열) 시접, 잔반(술잔, 받침대), 떡국(밥, 국)


(2열) 두동미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3열) 생선 · 두부 · 고기탕 등의 탕류를 놓음

(4열) 좌포우혜: 좌측 끝에는 포, 우측 끝에는 식혜

(5열) 조율이시: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귤 /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송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시다.

• 송편 만들기

재료: 쌀가루, 소금, 콩, 참기름, 솔잎, 뜨거운 물

도구: 큰 그릇, 찹솔, 숟가락



반죽하기



반죽 빚기



송편 소 넣기



모양 만들기



송편 찌기



추석의 전통놀이와 풍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 강강술래



- 올게심니



외국에도 우리의 추석과 같은 날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 미국의 추수감사절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와 옥수수빵, 감자, 호박파이 등 음식을 넉넉하게 만들어 먹으며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 중국의 중추절



음력 8월 15일을 '둥글다' 라는 뜻으로 중추절 또는 중치우지이라고 합니다. 달도 둥글고, 그날 주로 먹는 음식인 월병(위예빙)도 둥글며, 가족들도 둥글게 둘러앉아 화목을 도모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 프랑스의 투생



11월 1일 투생은 가톨릭 축일인 동시에 모든 성인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이날 프랑스인들은 고인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투생은 미국으로 건너가 할러윈이 되었습니다.

•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



11월 8일 직전의 토요일인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에는 가까운 친척끼리 모여, 햇곡식과 햇과일로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조상에게 성묘를 지냅니다. 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새들에게 햇곡식을 모이로 던져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보름달님에게 소원을 비는 편지를 써봅시다.

보름달님에게



년 월 일

() 올림

